

2022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일 자 : 2022. 7. 21.(목) 오후 1시

▣ 장 소 : 양캠퍼스 대회의실[화상회의]

결 재	간 사	의 장
		

명 지 대 학 교

2022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2. 7. 21.(목) 13:00 ~ 14:00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 참석평의원 : 김진환, 이상현, 최현선, 김용달, 이대욱, 최정현, 엄세빈, 변상범
(이상 8명)

■ 불참평의원 : 이정현, 이순식, 유석희(이상 3명)

■ 성 원 : 재적평의원 11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됨.

■ 안 건 :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안)

■ 심의내용

- 김진환 의장 : 평의원들에게 2022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감사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함
- 간 사 : 재적평의원 11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 김진환 의장 : 금번 제6차 회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제5차 회의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임을 설명함
- 김진환 의장 : 지난주 5차 회의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자연교수협의회는 자연캠퍼스만 정원을 감축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회원 205명중 15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40명이 반대함
 - 자연교수협의회에서는 어제 긴급 총회를 개최하여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만 추가 정원 감축이 발생할 경우 금번 정원을 감축한 자연캠퍼스에는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학 본부의 확답을 문서 또는 공문으로 답해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내용(E-mail)은 향후 현재 학사구조와 동일한 상황 등에서 교육부의 제재로 인한 추가 적인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대학본부는 2023학년도 정원 감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캠퍼스의 학과 및 전공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축(안)을 작성할 것이며 다만 통합 및 학사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는 점과 정원 감축은 교무위원회 통과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이러한 상황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 장영순 기획조정실장 입장

- 김진환 의장 : 대학본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평의원들에게 질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상현 평의원 : 자연교수협회의회의 절충안에 대하여 대학본부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
 - 장영순 기획조정실장
 - 자연교수협회회의 절충안에 대한 답변 내용은 행정부총장 뿐만아니라 총장에게도 보고하였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아울러 인문교수 협의회장에게도 답변 내용을 알린 상태임
 - 추가적인 감축에 대하여 본부에서 감축 계획을 마련할 때 답변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감축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추후 학실처장회의 또는 교무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어떤식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으로 답변을 한것임
 - 이상현 평의원 : 정원감축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문캠퍼스 정원의 5%를 전공자유학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요청함
 - 장영순 기획조정실장 : 전공자유학부로의 전환은 우리 대학이 타대학과 다른 배정 방법 등으로 인해 입시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을 수있고 또한 원하는 학과에 배정받지 못할 경우 중도탈락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입학처와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답변함
 - 김진환 의장 : 대학 본부의 답변 내용이 다음에 추가 감축이 있을 경우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자연캠퍼스에서는 감축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함
 - 장영순 기획조정실장 : 답변한 대로 분명하게 실행할 것임으로 확인함
 - 최정현 평의원 :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요청한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간 사 : 학생지원팀으로부터 공식적(협조문)으로 요청을 하면 답변하도록 하겠음
 - 최정현 평의원 : 통합을 위해 구성원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에 자연캠퍼스만 감축하여 분란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함
 - 장영순 기획조정실장 : 지리적인 요건에 따른 인문캠퍼스의 경쟁력과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미칠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인문캠퍼스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과 통합을 생각할 때 전문대 정원이 자연캠퍼스로 이전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임을 설명함 또한 통합을 고려하지 않아도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어느 캠퍼스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한 결과임
 - 최정현 평의원 : 대학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차원에서 감축을 감내한 자연 캠퍼스 학생을 위한 합당한 조치는 무엇인지 대학본부의 답변을 요청함
 - 장영순 기획조정실장 : 대학은 학생이 최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학생들의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임을 답변함
- ※ 장영순 기획조정실장 퇴장

- 김진환 의장 : 자연교수협회의 절충안에 대하여 대학본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통해 확인은 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한 평의원들의 다른 의견은 없는지 의견을 요청함
- 변상범 평의원 : 교육부의 학년도별 정원 감축 내용 및 소급적용 유무에 대하여 질의함
- 김진환 의장 : 교육부의 정원 감축 내용 및 대학본부의 답변을 통한 향후 감축시 감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함
- 최현선 평의원 : 자연교수협의회 절충안에 대한 대학본부의 답변을 인문교수협의회와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 김진환 의장 : 인문교수협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것임을 답변함
- 김용달 평의원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충분한 설명과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이며 학사 행정 관련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정원감축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대학본부에 요청함
- 이상현 평의원 : 회의록 작성후 회람을 요청함
- 김진환 의장 : 향후 대학평의원회가 재기능을 다하고 대학본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번 학칙 개정(안) 동의 여부를 요청함
- 전체 평의원 : 참석한 모든 평의원이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회의를 종료함

2022. 7. 21.

작 성 자 : 기획예산팀장 안 경 훈

